

보너스 레슨: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

이 서신(요한계시록)의 초반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 각각 호명되어 등장합니다. 교회마다 각기 다른 메시지를 받지만, 일곱 교회들 모두가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듣고 그들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요한계시록에 이 일곱 교회들이 등장하는 순서는 이 서신을 전하는 전령이 요한이 있는 밧모섬에서 출발하여 로마가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잇고자 건설한 도로들을 차례로 순회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아시며, 그들에게 친히 경고하고자 하시며, 또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아시며”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들은 각각 그 도시의 상세한 성격과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에베소 도시는 크고 웅장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도시의 유적들을 볼 때 이 고대의 도시가 한 때 누렸던 영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마칠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 언급 하시는데, 이것은 당시 에베소인들의 신 아르테미스를 위한 신전 앞 정원에서 있던 나무와 비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성스러운 나무로, 당시 만약 어떤 범죄자가 그 나무에 어느 정도 가까이 있기만 하면 그를 체포할 수도, 벌할 수도 없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나무를 연상시키시면서 이보다 더 큰 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의 차트는 각 도시들의 성격과 특징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상호 부합하는 지를 알려줍니다:

도시	특징	예수님의 메시지
서머나	파괴되어졌으나 다시 재건됨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수많은 이교도의 신들의 신전들이 세워진 아크로폴리스 (acropolis: 고대 그리스 도시의 중심에 있는 언덕); 성적 타락의 중심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그 지역에서 채취되는 검은 석재로 건물들을 지음; 하얀 석재는 비문이나 새김질을 위하여 사용; 잔치의 손님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돌맹이 위에 새겨 나누어 주는 전통이 있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잃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구리와 청동 산업으로 유명함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burnished bronze)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데	난공불락의 요새, 그러나 밤중에 페르시아의 기습공격을 받음 사형수의 이름은 도시의 공식 호적 기록에서 지워버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빌라델비아	지진이 빈번히 일어남; 아주 심한 지진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50년 전에 발생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오디게아	두 개의 강이 라오디게아를 통해 흐름: 히에라볼리(Hierapolis)로부터 내려온 뜨거운 온천, 그리고 콜로새(Colosse)로부터 내려온 차가운 강물; 물이 라오디게아에 다다랐을 때는 미지근하여 마시지 못함. 부유한 도시: 그 지역의 금융 중심, 발달된 의학 기술과 (특히 안과) 의학교로 유명, 검은 양모/양털의 산지. 큰 지진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원조를 받지 못했는데, 바로 주변 도시들이 라오디게아는 워낙 부유하기 때문에 자력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경고하고자 하시며”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 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각각 닥친 위기와 위협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어떤 위기들은 교회 내부의 문제들입니다: 교만, 게으름,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림, 또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등... 어떤 위기들은 교회 외부의 문제들입니다: “이세벨”, “니콜라 당의 교훈”, 유대인들의 훼방, 또는 그들이 마주한 다신교 문화 등...

이 모든 위기와 위협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재했으며 중대하게 다뤄져야 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교회들에게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즉시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해졌던 예수님의 권면과 경고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각 개인이 그 위협과 문제들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지라도 성도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한가지로 책임을 져야 마땅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지기 때문이며, 또 공동체 안에서의 각 개인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토론해 볼 주제:

1.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기숙사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는 우리 학교에게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칭찬*하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2.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기숙사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는 우리 학교에게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책망*하고 *권면*하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3. 현재 우리는 어떠한 위기들과 직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 혹은 우리 기숙사 공동체, 교회, 가족 안에?
칼빈대학교 안에?
2016년의 미국 교회들 가운데?
21 세기의 세계 교회들 가운데?

희망을 제시하시는 예수님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지는 각 서신들 끝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기는 자’들이 바랄 희망과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생명나무, 생명의 면류관,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새벽 별, 흰 옷, 생명책에 쓰여지고 지워지지 않을 새 이름, 하나님 성전의 기둥,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꼭 칼빈대학교의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함께 토론해 볼 주제:

이기는 자들이 가지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옵니까?

마침기도 (함께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

왕의 왕 되시며, 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친히 아시며, 우리에게 친히 경고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신께 친히 아신 바 됨으로 이 시간 위로를 얻으며, 당신의 경고에 즉시 응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생에 대한 참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국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그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 무궁히 통치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또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